현대소설연구(제83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1.09.83.189

이효석 소설에 나타난 도시성과 사회사적 맥락

김 정 남*

요약

이효석 소설의 주된 탐구 공간이 '도시'라는 사실은 연구자에게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중적으로는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향토적 공간이 우선적으로 연상된다. 그러나 이효석은 근대 도시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당대의 이념적 스팩트럼 하에서 폭넓게 조명한 작가이다.

먼저 '이중도시로서의 식민지 경성'은 주로 동반작가적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식민지 경성은 식민지 근대의 진척에 따라 혼종성이 나타난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배와 피지배라는 상수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한 식민지 도시 특유의 불균등 발전에 의한 이중 도시의 특성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전유된 공간으로서의 전원과 관광의 탄생'에서는 식민지 근대의 영향으로 경성과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도회 문화의 확산에 따라 전원과 휴양지와 교외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행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 도시인의 시각에서 자연이 새롭게 전원의 개념으로 호출됨과 동시에 무목적적·우연적 즐김이라는 오배(誤配)로서의 근대적 관광의 행위가 1930년대 도시 소설의 내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동경과 멜랑콜리의 공간으로서의 北國'에서는 해삼위와 하얼빈이라는 북국의 도시를 배경으로 이념적 지향성과 당대의 국제사회적 정체 속에서 시대의 향배를 성찰하고 있다. 동반작가적 경향이 짙은 초기작의 경우는 주로 소비에트 사회라는 사회주의 혁명 종주국과 그 인민들을 향한 동경이 짙게 배어 있고, 「북국점경北國點景」, 「하얼빈」의 경우는 일제의 만주 침공과 2차 세계대전으로 상징되는 격동하는 시대상에서 빚어지는

* 가톨릭관동대학교 VERUM교양대학 조교수

퇴행적 상황성을 짙은 멜랑콜리의 시선 하에서 부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문화의 양가성과 위생강제'에서는 백화점·호텔·바·카페·끽차부·유곽이라는 도시 문화 공간에서 나타나는 대도회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백화점과 호텔이 일상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모더니티와 사치라는 이중적 기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카페와 술집, 유곽은 이념의 선에서 일탈한 여성의 전락이라는 후일담적 요소와 모던걸과 모던보이로 대표되는 이들의 성희로 구체화된다. 이들에게 성은 자유의 기표이기보다는 건강성이 부재한 사회적 현실과 미래의 시간으로부터 단절된 데카당한 몸부림이며 이러한 도시문화의 퇴폐적 이면과 불륜으로 인한 강박증을 산문 경멸이라는 위생강제로 알레고리화하고 있다.

이효석은 식민지 시대, 서사적 사유의 공간과 그 진폭을 경성과 평양을 넘어 두만 접경지역은 물론 하얼빈과 해삼위까지 그 스펙트럼을 확대하여 세계사적 층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시대상을 폭넓게 성찰한 작가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그는 자신의 작품 세계 속에서 역사적 근대성에 길항하는 미학적 응전력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바, 그가 그려낸 식민지 시대의 도시 군상들은 그 시대의 다양한 지향점과 그 상실의 지점을 대변하고 있다.

주제어: 이중 도시, 전원, 관광, 북국, 멜랑콜리, 일상성, 위생강제

목차

1. 서론: 이효석 소설과 도시
2. 이중도시로서의 식민지 경성
3. 전유된 공간으로서의 전원과 관광의 탄생
4. 동경과 멜랑콜리의 공간으로서의 北國
5. 도시문화의 양가성과 위생강제
6. 결론: 이효석 소설의 당대성과 스펙트럼

1. 서론: 이효석 소설과 도시

도시는 이효석 소설의 중심 공간이다. 그 배경도 경성과 평양은 물론 동경과 하얼빈(哈爾濱)과 해삼위(海參崴, 블라디보스토크)에까지 확장되

어 그의 소설적 공간은 동북아시아의 권역을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초기 동반작가적 경향을 드러낸 단편들의 경우도 서사의 빈약함이나 이념의 침입적 논평에 소설적 낙인을 찍지만 않는다면 그 텍스트가 거느리고 있는 상황은 당대의 도시성(urbanity)을 고찰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1912년부터 시작된 경성시구개수(京城市區改修)로 상징되는 도시화의 흐름은 전통적인 농촌공동체의 삶에서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로의 대전회를 야기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도시적 일상성과 그 대척점으로서의 전원 및 휴양 문화의 발생까지도 목도할 수 있는 것이 이효석의 소설이 갖는 도시문학으로서의 가치다. 더 나아가 동반작가적 경향을 나타내던 초기 일본의 동경은 활동가들의 이념 규합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북국으로 상징되는 두만 접경 지방이나 만주와 연해주 등의 지역에서 해삼위는 사회주의 신흥계급의 이상을 표상하는 공간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이후 만주국 괴뢰정부 하의 하얼빈은 시대적 좌절과 회의주의로 점철된 후일담의 공간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그의 소설을 도시 소설[1]로 규정한다면 그 경험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性)과 성희 공간의 문제이다. 근대 도시 공간에서 성은 철저하게 남녀 간의 성적 교감이나 쾌락을 위해 존재하며 일제에 의

1) 도시 소설이라는 용어는 연애 소설, 전쟁 소설, 해양 소설처럼 다분히 소재주의적인 경향이 강한 편의적인 명칭이어서 개념적 엄밀성이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도시가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생활공간으로 경험되는 상황에서 도시적 라이프 스타일이 소설 속에 반영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와 도시적 삶의 양태에 대하여 유달리 관심을 기울인 소설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용어는 유의미성을 갖는다. 실제로 영미권의 학자들은 도시 경험(urban experience)이 현대 사회에서의 개체적, 사회적 삶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믿음을 전제로 도시의 현상과 풍속을 탐구하는 소설에 국한시켜 도시 소설의 범위를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가령, 『미국 도시 소설The American City Novel』(1954)의 저자 블랑쉬 겔판트(Blanche H. Gelfant)는 사회학자들이 도시성(urbanity)라고 부르는 도시생활의 전형적 특징들—예컨대 인간의 고립과 소외, 공동체의 붕괴, 전통적 규범의 소멸, 아이덴티티의 위기 등—을 반영하는 소설을 도시 소설로 규정하고 있다.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110-112면.)

해 이식되고 확장된 유곽은 경향문학적 기반 하에서는 유녀들의 쟁의로 피억압 계급의 저항을 표상하기도 하며 남성 화자의 유곽 체험은 타락과 전락의 공간으로 시대적 절망을 은유하기도 한다. 특히 유곽 문화 외에도 근대 도시 일상성 하에서 남녀 간의 관계와 교제는 윤리나 제도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륜이나 암묵적 방임에 의한 금기의 위반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윤리 기반의 붕괴와 봉건적 남녀관의 해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 도시의 다양한 삶의 양태를 당대의 이념적 스팩트럼 하에서 폭넓게 조명한 작가가 이효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제강점기 도시와 이를 둘러싼 도시 문학의 특성을 조명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의 카테고리 하에서 일별할 수 있다.

첫째, 식민지 경성의 도시 개발에 따른 이중 도시(dual city)적 양상에서 나타나는 도시 문제에 주목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로 식민지 경성의 어두운 이면사와 그 모순을 다룬 것으로 근대 도시 경성의 이중성과 모순에 착목하였다.[2)]

둘째, 근대 도시의 일상성과 오락 및 유흥으로서의 도시문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 경향이 있다. 이러한 입론은 신경과민과 같은 대도시의 정신생활[3)]이나 당대의 도회적 취향문화[4)]나 남녀 간의 애정과 윤리적 타락[5)] 그리고 타자화된 자연(전원)[6)]의 문제에 주목하였다.

---

2) 김성연, 「'꿈의 도시' 경성, 그 이면의 '폐허'—이효석 「도시와 유령」을 시점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7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227-249면. 김상모, 「도시 공간의 인식을 통한 근대성 탐구—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을 중심으로」,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3, 381-406면.

3) 이수형,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과 도시의 정신생활」,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409-436면.

4) 이미림, 「이효석 문학의 커피향기와 카페공간 고찰」, 『현대소설연구』 7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09-240면.

5) 김종건, 「이효석 소설의 도시공간과 작가의식」, 『통일인문학』 4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1-27면.

6) 강심호 · 전우형 · 배주영 · 이정엽, 「일제식민지 치하 경성부민의 도시적 감수성 형성과정 연

셋째, 하얼빈과 해삼위를 중심으로 한 북국 체험을 소재로 한 작품에 나타난 시대의식에 천착한 연구가 있는데, 이는 이효석의 도시 소설 중 가장 활발하게 연구된 논의의 입각점이다. 북국은 주로 동반작가 시기 이효석의 이념적 경사가 반영된 공간이기도 하지만 1940년 그의 「하얼빈」과 『벽공무한』을 보면 괴뢰국인 만주국 건국과 2차 세계대전이라는 세계사적 위치에서 바라본 식민화된 지역의 현실을 통해 "직접적, 압축적으로 세계 문명의 위기를 진단하면서 일본의 동아시아 진출에 비판적인 안목"[7]을 전달하기도 한다.

이효석 소설의 주된 탐구 공간이 '도시'라는 사실은 연구자에게는 주지의 사실이지만 대중적으로는 향토적인 공간이 우선적으로 연상된다. 그것은 「메밀꽃 필 무렵」이 드리운 편만한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고 이 작품과 더불어 「산」과 같은 작품이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기에 이러한 서정적·낭만적 세계가 그의 소설의 전부인 양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효석 소설에 대한 대중적 편견을 불식시킴과 동시에 이상의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의 단편전집[8]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중심으로 당대 도시성의 양상을 사회사적 맥락 하에서 고찰하여 도시 소설로서의 이효석 문학의 본질을 종합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2. 이중도시로서의 식민지 경성

이효석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그가 '이중언어'의 공간에서 일

구—193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소비문화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3, 101-148면.

7)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66면.

8) 본고의 텍스트는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단편전집』 1 , 애플북스, 2014와 이효석, 『도시와 유령—이효석 단편전집』 2, 애플북스, 2014이며 출전은 인용문 말미에 (전집 권수: 면수)의 형식으로 밝히기로 한다.

제 말 일본어로 소설을 발표함으로써 친일문인들이 주장한 내선일체에 기반한 국민문학론에 동조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는 서양의 문화적 전통과 서구적 근대에 깊은 동경을 가지고 있었지 서구로부터 수입되어 재생산된 일본의 근대를 근대의 정수로 여기지 않았다. 더불어 그는 근대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항시 견지했던 바, 그가 경성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선 속에 이는 충분히 녹아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식민지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은, 동반작가 시기의 단순한 이념 편향성을 걷어내고 보면 그 안에는 외화내빈이라고 할 경성의 말소되어 버린 꿈의 페이지가 오롯이 드러난다.

「주리면……—어떤 생활의 단편」(『청년』, 1927. 3)을 보면 실직 후 넉 달 동안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셋방에서 지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사흘을 내리 굶은 그를 아랑곳하지 않고 방세를 요구하는 집주인의 방문을 받게 된다. 여기서 그는 “못된 거지”(2: 56), “도야지만도 못한 놈!”(2: 57)이라는 핀잔과 함께 밖으로 쫓겨나게 된다. 이에 주린 배를 견디며 거리를 배회하던 그의 눈에 비친 거리의 모습은 그의 내면적인 정황과는 정반대로 “잰 사람들의 걸음” 속에서 “잔치나 벌어진 듯한”(2: 58) 모습으로 다가온다. 게다가 며칠 전 거지 아이가 죽었던 우체통 옆자리에 애도의 말미조차 갖지 못한 채 과물전이 열려 있는 장면은, 도시적 삶의 냉혹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제 밤이 되자 경성의 거리엔 전등불이 밝혀지고 “입술에 기름이 번지르 흐르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2: 60)하게 보인다. 그 순간 그의 유일한 행복이란 허기를 면하는 일이지만 그는 “주먹을 쭐쭐 빨고 있는 자신”(2: 60)을 발견한다. 이때 큰 벽돌집 꼭대기에는 소화제를 선전하는 네온 광고판이 화려하게 빛을 뿜는다. 이 아이러니는 화려한 근대도시 경성의 만성적 실업과 빈곤화[9]라는 이면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9) 경성부민의 대다수는 절대 빈곤층이었다. 1928년 7월 현재 하루 한끼만 먹는 극빈자는 경성 시내에 만7천호 10만여 명에 달하여 경성 시내 전체 조선인의 40%를 넘었다. 또 경성부의 조

한편, 식민지 도시의 공통적인 특성인 이중도시(dual city)의 측면에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미 주목의 대상이 된 「도시와 유령」(『조선지광』, 1928. 7)은 근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동의 모순된 양가적 가치와 도시민의 빈곤과 가속화되는 도시 슬럼화 등 식민지 수도 경성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화자인 '나'는 동대문 밖의 상업학교 가제假製(임시로 대강 만듦-原註) 현장에서 일하는 미장이이다. 화자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에서 고된 일에 시달리면서도 자신들의 노동이 "몇 백 칸의 벌집 같은 방으로" "여러 층의 웅장한 건축으로 변함"(2: 64)에 위대함을 느낀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은 "어리석은 미련둥이들이라."(2: 64)라는 서술로 이어지면서 아이러니를 획득한다. 이는 맑스의 「Economic and Philosophic Manuscripts of 1884」에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이 자기 노동의 생산물, 자신의 생활활동, 자신의 유적 본질로부터 소외"[10]된다는 노동 소외론과 그 맥을 같이 한다.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의 양가적 의미를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지만, 화자는 행랑방 하나 없이 노숙을 하며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벌써 동묘의 대문께에 이르러 내리는 빗발을 피하여 처마 밑으로 갔을 때, 화자는 건너편 정전 옆에 개똥불과 같은 불빛을 발견하고 이윽고 그것을 향해 돌멩이를 던졌지만 불빛이 흩어지긴커녕 움직이지 않고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 이에 대경(大驚)하였지만 그는 틀림없던 노깨비가 결국 "두 모자의 거지"(2: 75)임을 알아차리게 된다. 사연인 즉, 도깨비불이란 "그놈의 원수의 자동차"(2: 78)에 치여 다리를 다친 어머니가 아픈 다리에 바를 약을 찾기 위해 성냥을 켠 것이었

선인 가운데 60%는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는 무소득, 무소유자였다.(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106면.)

10) Karl Marx, 최인호 외 옮김, 「1844년의 경제학 철학 초고」,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1, 박종철 출판사, 2000, 80면.

다. 이에 화자는 얼마 전 거리에서 목격한 교통사고의 장면을 기억해 내는데, 그 여인을 친 차에는 "불량배와 기생년이 그득"(2: 80)하였던 것이다.

경성이라는 도시의 공간적인 차원에서 보았을 때, "고무풍선 같이 떠다니는 파라솔이 있고 땀을 들여주는 선풍기가 있고, 타는 목을 식혀주는 맥주 거품이 있고, 은접시에 담긴 아이스크림이 있"(2: 78)는 공간은 남촌으로 표상되는 장안의 사람들의 몫이다. 반면 동묘 주변의 북촌은 유령으로 상징되는 노숙하는 빈민들의 슬럼지구로 그려져 있다.[11] 이렇게 소설 속에 묘사된 조선인의 종로(북촌)와 일본인의 본정(남촌)이라는 이중도시에 대한 관점은 최근 여러 각도로 재론되고 있다.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 이전을 전후해 이루어진 일본인 세력의 북촌 진출[12]과 잡거지 논의를 중심으로 한 "잡종성/혼종성(hybridity)을 지닌 탈식민적 주체"[13]에 대한 논의가 그것이다.

---

11) 서울의 조선인과 일본인들은 거주지역에서, 상권에서, 그리고 도시개발 면에서 서로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다. 그 분단된 양측의 중심에는 각각 종로와 본정이 있었다(전우용, 「종로와 본정—식민도시 경성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제40권, 한국역사연구회, 2001, 163-164면.)

12) 김백영은 러일전쟁의 발발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는 시기(1904-45)의 서울의 도시사를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한다. 제1기(1904-14)는 러일전쟁 발발로부터 경성부(京城府) 성립에 이르는 시기이고, 제2기(1914-26)는 도심부의 주요 상징건축물 및 간선도로망이 완비되는 시기이며, 제3기(1926-36)는 식민지 수도로서 본격적인 도시 성장과 자본주의적 소비문화의 발전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마지막으로 제4기(1936-45)는 확장된 대경성(大京城)의 도시적 갈등과 사회적 모순이 전시총동원체제의 수립을 통해 봉합되는 시기이다.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ⅰ-ⅱ.) 그는 '표주박형 이중도시'가 성립되는 제1기와 이중도시의 성격이 강화되는 제2기를 지나 1926년 조선총독부 청사의 이전으로 상징되는 일본인 세력의 북촌 진출과 함께 소비문화가 확산되는 제3기에 이르면 일부 피식민자들은 두 개의 공간을 드나들며 이중적 주체성을 연출하는 혼성과 모방(위의 책, 227면.)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현상이 "더 이상 남촌과 북촌을 가르는 이중도시의 민족적 경계가 절대적 성격을 띠지 못하게 되었음"(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376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13) 진수미, 「모던보이와 암살의 본정과 종로 재현 연구—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한국콘텐츠학회, 2019, 236면.

그러나 1920년대 후반 경성은 권력의 수뇌부들의 북촌 이전과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도시의 불균등 발전(uneven development)에 근거한 공통적 구조인 이중도시의 특성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었는데, 「도시와 유령」의 두 모자의 거지가 처한 상황과 같은 북촌의 빈곤화와 슬럼화라는 당시의 사회상[14]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한다. 따라서 식민지 경성은 식민 권력의 공간 확대와 근대문화의 모방과 향유라는 변수도 무시할 수 없겠으나 사회적 불균형이라는 상수가 보다 근본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식민지 내부의 근대 모방이라는 자율성은 식민지 근대라는 복잡계의 한 측면이기도 하겠지만 이것이 긍정될 때 필연적으로 수용될 수밖에 없는 식민지 근대화론은 최종심급으로서의 식민지배의 억압을 희석시키는 더 큰 위험을 지닌다. '모던보이'와 '모던걸'이 「도시와 유령」에 등장하는 '불량배'와 '기생년'과 전적으로 등치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이 근대를 학습하고 실천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주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해석되고 매개된 근대를 모방하는 일부 피식민자의 소비문화의 경향이 남촌과 북촌으로 상징되는 공간적 이중성을 근본적으로 분해하는 결정 인자로 기능하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행진곡」(『조선문예』, 1929. 6)의 "자연의 성을 감추지 '않으면 안 되는' 소년"과 그녀를 돕는 "국적을 감추지 않으면 '않으면 안 되는'"(2: 99-100) 아라사 청년이 등장하는 노동숙박소의 풍경도 이와 같은 경성의 이중성을 오롯이 반영한다. "일루미네이션과 헤드라이트와 사이렌으로 들볶아치는 거리에 비하여 뒷골목의 우중중한 이 숙박소는 버림을 받은 듯

14) 종로 상가는 구각(舊刻)을 탈피하고 있었지만 그 상업적 지위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중략) 고객의 끊임없는 빈곤화와 북촌의 슬럼화는 종로를 위협하는 최대의 요인이었다. 거지가 되어 종로거리를 배회(『東亞日報』, 「鐘路署에 乞人群」, 1929. 10. 27.)하거나 캐러멜 조각을 들고 동정을 호소하는 소년행상(『東亞日報』, 「鐘路一帶에 彷徨하는 少年少女룸펜行商群」, 1934. 2. 10.)으로 종로거리를 덮었다. (전우용, 위의 책, 188면.)

이 쓸쓸하였다."(2: 88)는 문장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동반작가적 경향을 뚜렷하게 보이던 당시의 작가는 이런 노동숙박소의 사람들을 향해 "거칠고 무미는 하나 솔직하고 거짓이 없"(2: 88)으며 "넓은 세상의 지식이 있고, 피로 겪어온 체험이 있고 똑바른 인식"(2: 89)이 있다고 서술함으로써 그들을 향한 계급적 애정과 지향을 나타낸다. 더불어 매음녀들의 동맹파업을 다루고 있는 「깨트려진 홍등」(『대중공론』, 1930. 4) 역시 일본을 통해 이식된 유곽의 여성들의 삶의 비참함을 다루며 민족차별적, 성차별적, 규율 권력적이었던 식민권력의 식민지 근대성의 대표적 표출 공간[15]인 유곽이라는 식민지 경성의 음울한 이면을 드러낸다.

이처럼 이효석은 식민지 경성의 이중성을 주로 동반작가의 시선에서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모순을 계급적 모순의 차원에서 착목하였다. 동시에 이를 둘러싼 종로와 본정이라는 공간적 이중성 혹은 향유 문화의 이중성의 차원에서 이를 소설적으로 형상화하였음을 이해할 수 있다.

3. 전유된 공간으로서의 전원과 관광의 탄생

작가 이효석은 평양에 거주하던 시절[16], 『조광』에서 마련한 평양을 소개하는 좌담회[17]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서 좌참 참석자들은 "평양의 선진성을 강조하고, 경성이라는 중심과의 경쟁의식"[18]을 드러낸다. 이에 대

15) 김종근, 「식민도시 경성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16) 1936년부터 1938년까지 평양 숭실전문학교에 재직하다 이 학교가 폐교됨에 따라 1939년 대동공업전문학교의 개교와 함께 영문학 교수로 취임한다. (「이효석 연보」, 2: 628)

17) 「내 地方의 特色을 말하는 座談會-平壤篇」, 『조광』, 1939. 4. 이 좌담회는 평양의 지방지를 구성할 정도의 방대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되었고, 이 자리에 대동공전에 재직 중인 작가 이효석이 출석하였다.(정종현,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間SAI』 4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5. 110면.)

18) 위의 책, 111면.

한 근거로 “상공도시로서 평양에 대한 대화”에서 “자원, 기술, 노동력, 공업용수, 운수시설 등의 장점”[19]을 내세우며 “제국의 여타 지방과 동렬에 서고자 욕망”[20]을 드러낸다.

사실상 일제는 1904년 러일전쟁 발발과 함께 평양이 병참선로상에 위치함에 따라 1913년까지 각종 군용시설을 모두 준공[21]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수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일본인 거주를 위한 시가지 건설”[22]을 추진하였다. 또한 1930년대에는 서북지역의 중심도시인 평양은 중일전쟁 등 국제적인 여러 정세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였으며 “제국의 산업기지”[23]로 변모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향수」(『여성』, 1939. 9)는 이효석의 평양 거주 시절 창작된 작품으로 이러한 평양의 도시화에 따른 소시민적 도회의 일상과 그 대타적 위치에 놓이게 되는 전원(시골, 고향)의 발생학적 기원을 탐색하고 있는 작품이다. 여기서 화자는 “소꿉질 장난감 같은 베이비 하우스”(1: 350)에서 가정살림과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아내를 “새장 안의 신세”(1: 350)로 여기며 측은해 한다. 더 나아가 “현대의 무수한 소시민의 생활의 탄식”은 바로 “부질없는 감질”(1: 351)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진단한다. 급기야 아내는 도시 생활에서 오는 피곤증을 정양코자 시골에 다녀오겠다고 통고하기에 이른다. 화자는 이러한 아내의 욕망은 “도회의 피곤에서 느끼는 향수”이며 “해방의 의욕”(1: 356)이라 해석한다.

이러한 아내의 시골 행은 근대 도시의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인데, 여기서 전원은 도시에 대응하는 이상화된 자연의 공간이자 근원적 공간을 의미하는 상징적 기표로 나타난다. 이는 전통사회에서 속세를 떠나 자연에

19) 위의 책, 111면.
20) 위의 책, 112면.
21) 박준형,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 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문제—일본인 신시가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41면.
22) 위의 책, 50면.
23) 정종현, 앞의 책, 111면.

은거하는 도가류의 사상이나 음풍농월의 자연 예찬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근대 사회에서의 전원은 도시라는 매개항 속에서 전유된 "관념의 산물이자 적극적인 소비의 대상"[24]인 것이다.

그러나 아내는 "불과 한 달도 못되어서 협착하다고 버리고 간 도회"(1: 361) 평양으로 돌아와 "호박꽃두 늘 보니까 싫증이 났어요."(1: 363)라고 술회하고, 이렇게 "두 번째의 향수—도회에 대한 향수"(1: 361)의 감정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상황으로 마무리된다. 이는 한 때 몇 십만 대의 호농이었던 아내의 친가가 몰락하였다는 현실적인 사실과는 무관하다. 도시적 삶의 양식이 하나의 풍경으로 내면화된 아내에게 관념화된 전원의 개념은 그녀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도회로의 귀환이라는 '리턴 현상'은 도시인의 전원관의 비실재성과 허구성을 반증한다.

한편 「마음의 의장意匠」(『매일신보』, 1934. 1)의 경우도 아내가 시골로 정양 차 귀향해 있던 차에 남편인 화자와 그의 일상을 돌보아 주는 '유라'와의 애틋한 정담(情談)을 도회적 일상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적인 내용은 아내가 가 있는 전원생활과 그 귀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도회에 남은 남편과 유라와의 생활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므로 아내의 귀향이라는 모티프 상의 유사성만 있을 따름이다.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유라가 회복한 듯 홀가분한 치장으로 찾아와 화자에게 "별안간 바다가 보고 싶어요, 가을 바다가."(2: 372)고 말하자, 그 둘은 느린 기차를 타고 한 시간 남짓 달려 바다를 찾게 되는데 이는 근대적 여가의 한 풍경이라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이렇게 교외선을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여 일정 시간 자연을 향유하고 로맨스를 즐긴 뒤 바로 도시로 복귀하는 것은, 근대 도회인이 자연을 즐기는 전형적인 형식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러한 "관광은 근대 이후에 출현한 것"[25]

24) 강심호 · 전우형 · 배주영 · 이정엽, 앞의 책, 109면.
25) 아즈마 히로키, 안천 옮김, 『관광객의 철학』, 리시올, 2020. 23면.

이다. 이는 철도를 비롯한 교통의 발달은 물론이거니와 “대중 사회와 소비 사회가 형성되어야”[26] 가능한 일이다. 식민지 조선 전체가 이러한 문화적 조건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1930년대의 도시적 삶 내부에는 이러한 근대적 의미의 관광의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고 그 행위를 통해 근대의 코스튬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계절」(『중앙』, 1935. 7)에 등장하는 ‘건’과 ‘보배’의 인천 해수욕장으로의 짧은 여행의 모티프 역시 교외 여행[27]이 1930년대 대도시의 도회인에게 그리 낯설지 않은 여가 문화의 일부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성화聖畫」(『조선일보』, 1935. 10)에서 백화점에 설치되어 있는 오존 발생기에서 “솔잎 냄새 같기도 하고 나뭇진 냄새 같기도 한”(2: 460) 내음을 맡은 ‘유례’가 화자와의 대화 속에서 즉흥적으로 여행을 결정하고 트렁크 등의 여행 용품을 준비하는 모습은 지금을 사는 도시인의 삶과 조금의 유격도 발견할 수 없다. 그들의 여행이 충동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이라는 여행지를 선택한 것도 큰 이유가 없다. 단지 서울을 멀리하고 싶었고 차 속의 시간을 지루하지 않을 만큼 즐기기 위한 것이다. 여행 자체가 실용적 목적이 전적으로 배제된 즐김이자 유희인 것이다.[28] 이러한 “들뜸(우연성)”이 바로 관광의 본질이며 이는 “발터 벤야민이 주목한 ‘산책자’의 출현과 같은 시기에 탄생”[29]한 개념이다. 「성화」에서 기차가 해발 800M의 고원지대의 분수령을 넘어가는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는데, 여기서 제시되는 “또한 내 생활의 분수령이 될는지도 모르오.”(2: 470)라

26) 위의 책, 24면.

27) 따라서 당대의 전원은 궁핍한 농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인에게 삶의 위안과 활력을 주는 소비의 대상으로 변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외’가 드라이브 코스가 되었고, 청량리, 뚝섬 같은 경성 주변이 명소로 변했다. 또 성천, 덕천 등의 온천장 역시 도회 사람들의 향유지가 되었다.”(강심호 · 전우형 · 배주영 · 이정엽, 앞의 책, 109면.)

28) 생활이나 직업상의 필요로 하는 여행은 관광이 아니다. 관광은 원래 갈 필요가 없는 장소에 기분에 따라 가서, 볼 필요가 없는 것을 보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을 만나는 행위다.(아즈마 히로키, 앞의 책, 36면.)

29) 위의 책, 36면.

는 화자의 말은 여행의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무위적인, 즉 우연히 시선 안에 들어온 대상”[30]에 대한 관광객적 주체의 반응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관광객의 철학’[31]이라 명명할 수 있다. 따라서 이효석의 소설에 등장하는 여행의 모티프는 이러한 근대적 관광의 개념에 닿아 있는데, 이는 산책가적 성향이 외화된 무목적적·우연적 즐김이라는 ‘오배(誤配)’[32]로서의 근대적 관광의 행위가 1930년대 도시 소설의 내면에서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이와 같이 이효석의 소설은 경성과 평양이라는 식민지 대도시의 라이프 스타일과 그 반대항에 놓이는 시골이 어떻게 전원이라는 새로운 관념의 공간으로 전유되고 호출되는지를 세밀하게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철도로 대표되는 교통기관의 발달과 근대적 소비문화의 형성으로 말미암아 실용적 목적이 배제된 여가의 일환으로서 근대적 여행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예각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4. 동경과 멜랑콜리의 공간으로서의 北國

이효석의 소설의 공간을 동북아시아 권역으로 확대시켜 주는 장소가 바로 만주와 연해주이다. 그 중에서 하얼빈과 해삼위는 초기 동반작가 시절부터 2차 세계대전과 만주국 수립 이후의 황폐한 시대상을 다룬 작품

30) 위의 책, 37면.

31) 종국적으로 아즈마 히로키가 제시하는 ‘관광객’의 개념은 자유주의와 내셔널리즘, 그리고 글로벌리즘 사이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한 상징적인 정치적 주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본고에서 인용한 『관광객의 철학』의 제1장에 해당하는 ‘관광’은 이러한 논의를 위한 기본적인 전제이자 그의 철학적 추론과정의 서설에 해당하는 것이다.

32) 이러한 ‘쓸모없음’은 오배(誤配)의 다른 이름으로서 ‘목적에 도달하지 않는 것’을 지칭한다.(아즈마 히로키, 안천 옮김, 『철학의 태도—사상의 패배’ 시대에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노마드, 2020, 106면.)

에 이르기까지 그의 소설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여기서 하얼빈과 해삼위는 각각 그의 전후기 문학의 풍경을 대비적으로 대변한다. 1920년대 동반작가 시기의 해삼위는 “이효석의 마르크스이념이 실현되는 유토피아”[33]로 설정되고, 또 하나의 이국 도시는 “후기문학의 배경인 하얼빈”[34]이다.

먼저 동반작가적 경향을 짙게 나타내는 소위 북국 3부작으로 알려진 「노령근해」(『조선강단』, 1930. 1), 「상륙—어떤 이야기의 서장」(『대중공론』, 1930. 6), 「북국사신」(『신소설』, 1930. 9)의 배경은 모두 소비에트와 맑시즘에 대한 지향성과 그 가치실현의 현장으로서 그 공간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슬라브 민족)을 이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구체적인 경험과 관찰의 결과라기보다는 아프리오리한 이념의 렌즈에 의해 ‘착색된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노령근해」는 두만강의 하구를 건너 국경선을 가로지르는 저물녘의 국제여객선 갑판에서 시작한다. 여기서 화자는 뱃전에 의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두 선객을 발견한다. 이 중 한 사람이 “코 높은 ‘마우자馬牛子’(러시아 사람을 낮추어 부르는 말-原註)”(2: 133)이다. 낙타빛 가죽 셔츠와 검은 에나멜 혁대, 툽툽한 구두, 창 빠른 모자, 이와 같은 차림을 언급하며 화자는 그를 영웅적으로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게다가 “연해주의 각지를 위시하여 네르친스크 치타 방면을 끊임없이 휘돌아치느니만큼”(2: 133) 대륙적인 호방한 기운이 느껴진다며 이를 “슬라브족다운 큼직한, 호활한 풍모”(2: 33)라고 칭양한다. 이러한 러시아인에 대한 외경의 심리는 일종의 서구취향이나 백색동경으로 이해되는데, “서구 문명에 정향된 미적 보편주의”[35]를 주장했던 이효석의 지향의식은 이 작품에서 러시아인을 바라

33) 이미림,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61, 우리문학회, 2019, 243면.

34) 위의 책, 243면.

35) 김미란, 「감각의 순례와 중심의 재정위—여행자 이효석과 ‘국제 도시’ 하얼빈의 시공간 재구성」, 『상허학보』 38집, 상허학회, 2013, 183면.

보는 화자의 시선 속에 침윤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국제여객선의 살롱에서는 육지의 그것과 다름없이 질펀하게 먹고 마시는 잔치가 열리고 있는데, 이에 화자는 술과 아름다운 풍경이 보이는 살롱은 선경, “초열(타는 듯한 더위-原註)과 암흑의 기관실”(2: 135)은 지옥으로 비유하며, 육지에서의 그릇된 대조가 이 바다 위의 작은 집합 안에서도 노골적으로 드러난다고 계급적 인식에 기초한 분노의 감정을 드러낸다. 이윽고 암흑의 공간에서 노역에 시달리는 기관실 동료에게 준비한 음식을 가져다주며 뽀이는 “그들의 한 때의 양을 줄이면 우리의 열 때의 양은 찰 걸세.”(2: 140)라고 말하며 부르주아에 의해서 왜곡된 부의 불평등 구조에 대한 비판의식을 발현한다. 이어 조금만 참으면 꿈꾸던 나라에 내리게 된다고 덧붙이는데, 그 나라란 다름 아닌 소비에트를 가리킨다. 이는 화자가 꿈꾸는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다 같이 살기 좋은 나라’(2: 142)라는 사회주의적 이상에 정향된 의식에 부합한다.

「상륙—어떤 이야기의 서장」(『대중공론』, 1930. 6)은 석탄 화물선에 몸을 싣고 밀항하여 “아세아 대륙의 동방. 소비에트 연방의 일단”(2: 184)인 해삼위에 닿아 사회주의 이상 국가에 발을 딛게 된 환희의 감회를 서술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한시라도 빨리 “가죽옷 입고 에나멜 혁대 띤 굵직한 마우자들 숲에 한시라도 속히 싸여보고 싶었다”(2: 185)는 욕망을 감추지 못하며 사회주의 신흥계급의 이상을 경험하고자 한다. 이윽고 “칵파쥐빠— 예테?”(2: 188, 어떻게 지냈어요?-인용자 주)라는 러시아인의 말에 동지애를 느끼며 고국에 대한 애수를 떨쳐버리고 그곳에 발을 딛게 된다.

이와 같은 동반작가로서의 가지는 이념적 지향성은 서사적 조건의 상정보다는 열띤 침입적 논평에 의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리얼리티와 소설적 핍진성에는 부합되지 못한다. 이 3부작 소설 중 마지막 「북국사신北國私信」(『신소설』 1930. 9)도 북국의 한 항구(해삼위)를 배경으로 역시 직접적이고 웅변적 형태의 서술 태도가 서두 부분에 노골적으로 드러나지만 후반부의 노동자들의 오아시스 ‘카페 우스리’에서의 장면은 나름의 서

사성을 획득하고 있다.

서두 부분은 사회주의 사회의 씩씩한 기상을 묘사하는 데 할애하는데, 이와 같은 자본주의 구습을 타파한 새로운 문화는 퇴근 무렵의 노동자의 모습에서 유감없이 나타난다. 굽 높은 구두에 불안정한 체력을 싣고 걷는 얇은 다리에는 “멸망하는 계급의 불건강한 미학”(2: 261)이, 굽 얇은 구두에 탄력있게 걸어가는 밋밋한 다리는 “신흥한 나라의 건강한 미학”(2: 261)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다.

이어 자신의 사생활에 관한 에피소드가 길게 이어지는데, 이는 카페 우스리에서 “아름다운 이 나라의 미인의 키스를 받고 사랑을 얻은 이야기(2: 261)이다. 이 카페는 “모보(모던보이-原註)들이 재즈를 추고 룸펜들의 호장(호탕하고 씩씩함-原註)된 기염을 토하는 곳”(2: 262)이 아닌 진정한 노동자의 안식처라고 소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퇴폐 문화와의 차별성을 밝힌다. 이 공간에서 카페 주인의 딸을 놓고 벌어지는 키스 경매에 관한 사건이 장황하게 펼쳐지는데, 어찌 보면 음란하고 퇴폐적으로 들릴 놀이가 실은 건강하고 허물없는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는 이야기를 통해 “여기에 또한 슬라브다운 기풍”(2: 276)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평을 가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에 대한 동경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동반작가 시기의 북국 3부작에 내포된 사회주의를 향한 꿈과 동경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이태 후에 발표된 「북국점경北國點景」(『삼천리』, 1932. 3)만 보아도 두만강 접경 지역의 풍경은 근대화에 대한 깊은 회의와 혁명 후 쫓겨나온 백계 러시아인의 부르주아 문화에 대한 양가적 감정, 아들을 기다리는 실성한 여인네, 비행기 폭격 장면, 참외 속에 권총과 총알을 숨긴 모던걸을 하나하나 점경으로 그려냄으로써 세계사적 격변기에 맞물린 시대고의 장면을 음울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모는 「하얼빈」(『문장』, 1940. 10)에 이르면, 이념의 지표와 시대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져 작품 전반에 음울한 회의주의의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벽공무한』은 작가의

“1939년 두 번의 만주여행 체험을 바탕”[36]으로 씌어진 소설인데, 이 작품에 그려진 하얼빈은 주로 “‘제국의 이상이 실현되는 공간’, ‘구라파의 흔적이 남겨진 공간’, ‘범죄와 공포의 공간’이라는 세 가지 층위가 공존하는 헤테로토피아”[37]로 나타난다.

“193·40년대 하얼빈은 일본의 만주 침략과 함께 형성된 콜로니얼 도시”[38]이자 “작은 서양이자 구라파인 동양의 파리”[39]로 인식되었다. 송화강가의 작은 어촌마을이었던 하얼빈은 20세기 세말세초에 러시아에 의해 동청철도가 건설되면서 “상이한 민족들이 어울려”[40] 사는 국제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어 러일전쟁기(1904-1905)에는 러시아의 군사기지로, 1917년 러시아 혁명 후에는 본국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이어 일본이 만주국(1932-45)이라는 괴뢰국가를 수립한 이후엔 다시 일제의 손아귀에서 식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처럼 하얼빈은 20세기의 세계사적 혼란과 부침을 경험하고 이를 구석구석 새겨 넣고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서사는 화자가 키타이스카야(하얼빈의 중앙대로-原註)의 중심지에 있는 호텔[41]에서 거리를 관찰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도회의 소음으로 가득한 거리를 바라보며 화자는 “번번이 슬퍼져감”을 느끼고 “이유를 똑똑히 가릴 수 없는 근심”(1: 465)이라 명명하며 자신의 시선과 밖의 풍경을 중개(仲介)하고 있는 우울의 본질을 명료하게 인식하지 못한다. 일단 화자는

36) 이미림, 앞의 책, 243면.

37) 이경재, 「이효석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제58권, 현대소설학회, 2015, 331면.

38) 이미림, 앞의 책, 245면.

39) 박종홍, 「하얼빈 공간의 두 표상—「심문」과 「합이빈」의 대비를 통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99면.

40) 위의 책, 99면.

41) 이곳은 이효석이 하얼빈을 방문할 때마다 묵었던 곳으로 1906년 러시아인이 세운 ‘모데른’(modern)호텔일 것이다.(김남극, 「하얼빈에서 만난 애수-북만주에서 만난 이효석의 흔적들」, 『작가세계』 19, 작가세계, 2007. 11, 98면.)

자신의 우울의 원인을 우선적으로 거리의 풍경에서 발견하고 있다. 서구 문화에 대한 깊은 동경을 가지고 있었던 이효석에게 하얼빈이란 동양의 파리라 일컬어지는 바와 같이 유럽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국 수립 이후 도시 지배의 주체가 일본으로 넘어가면서 도시의 풍광 속 서구적 가치가 훼손되고 상실되어 간 것이고 이에 화자는 애수를 느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감정은 폴란드 태생의 어머니의 피를 받은 혼혈 여성 '유라'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도시 기행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된다. 유라는 화자의 우울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다음과 같이 호응한다. "보세요. 저 잡동사니의 어수선한 꼴을. 키타이스카야는 이제 벌써 식민지예요. 모든 것이 꿈결같이 지나가 버렸어요."(1: 467, 강조-인용자) 이는 곧 러시아, 중국, 일본이 혼재되어 있는 하얼빈의 혼종성 안에서 그 지배자가 일본이 됨으로써 유럽적 미학이 점점 꿈결처럼 사라져버린 것에 대한 한탄이다. 이 공간에서 유라 역시 외국인처럼 자신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응이다.[42]

이어 부두구(埠頭區) 일대의 주택 지대를 거니는 중에 발견하게 된, 본국과 연락마저 두절된 채 초라한 사택으로 전락한 불란서 영사관과 셋집이 되어버린 화란 영사관은 2차 세계대전의 참화로 인한 유럽적인 것의 훼손과 상실을 의미하며 이는 화자에게 깊은 애수의 감정을 심어주게 된다. 이어 송화강 가를 산책하다 요트구락부에 이르러 '떽 파러'(갑판-原註)에서 한창인 저녁 식사 자리로 장소를 이동하게 된다. 여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화자는 "하얼빈의 큰 사치의 하나"(1: 473)라고 폄하하며, 음악에 관심도 없고 이를 이해하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차이코프스키의 실내악

42) 만주국 수립 이후 하얼빈에는 "일본인과 중국인이 신시가지에 거주하며 지배계층이 된 반면 주변의 구시가지로 밀려난 백계러시아인과 조선인, 그 외 소수 종족은 피지배계층이 되어야 했"(조은주,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한국민족문화』 48, 2013.8, 117면.)다.

은 개 발에 편자"(1: 473)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는 그만큼 하얼빈이라는 공간이 서구문화의 본령에서 탈리되어 중국인, 백계 러시아인, 조선인, 일본인이 뒤엉킨 혼종적인 문화 속에서 속루해진 상황을 가리킨다. 도무지 식욕이 없는 유라와 파러를 나올 때, 화자는 "판타지아의 변소를 지키는 늙은 뽀이"(1: 475) 스테판에게 팁을 더 주지 못한 것에 부끄러움을 넘어 죄책감까지 느끼는데, 그는 혁명 후 쫓겨 달아난 백계 러시아인으로서 다시 소비에트로 돌아가기 위하여 십만 리 먼 길을 가기 위한 찻삯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

스테판이 그렇듯, 혼혈인인 유라도, 조선을 떠나 여행을 온 화자도 하얼빈은 꿈을 꿀 수 없는 공간이고 이들이 지향하는 공간은 지금-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있다. 유라의 입을 통해 말해지는 것처럼 "무서운 회의주의자"이자 "우울한 얼굴"(1: 472)의 소유자인 화자나 "몸이 좋아져선 뭘 하게요."(1: 475)라거나 "―언제나 죽구 싶은 생각뿐예요."(1: 478)라고 말하는 유라는 모두 하얼빈이라는 근대도시의 멜랑콜리커다. "세계를 관조하고 해독하는 우울한 시인의 자기 정체성을 보들레르는 만보객(flâneur)과 댄디(dandy)의 개념으로 설정"[43]하였듯이 화자와 유라는 "단순한 우울자가 아니라, 우울이라는 시대적 감정을 인식론적이고 존재론적인 전략으로 구사하는 메타적 우울자"[44]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의 화자와 유라는 "만보객의 토성적 정조를 자신의 존재론적 원칙으로 확립하는 주체"[45] 즉 댄디의 정서적 태도로 하얼빈을 관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에서 화자와 유라의 상태는 "자애심의 추락"[46]이 나타나지 않는

43)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한국사회학』 40(3), 한국사회학회, 2006, 24면.

44) Proust, F, *L'histoire à contre-temps. Le temps historique chez Walter Benjamin*, Paris: CERF, 1994, p.78.(위의 책, 24면. 재인용.)

45) 위의 책, 24면.

46) 지그문트 프로이트, 윤희기 역, 「애도와 멜랑콜리」, 『프로이트 전집 13-무의식에 대하여』, 열린 책들, 1997, 249면.

애도(mourning)와는 철저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애도는 궁극적으로 대상의 상실을 인정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으면서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서”[47] 지만 “멜랑콜리의 주체는 자신을 쓸모없고 무능력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아라고 비난하고, 이 사회에서 추방되고 처벌받기를 기대”[48]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화자는 서구적 이상이 철저하게 파괴되어가는 하얼빈의 식민지적 현실을 목도함과 동시에 더 깊은 상실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담배만 먹고 식욕이 없고 황새같이 여윈”, “속으로 죽음을 생각”(1: 478) 하는 유라 역시 스스로 느끼는 “도덕적 열등감의 망상은 불면증과 단식(斷食)”이라는 멜랑콜리의 일반적인 발현태과 상통하고 이는 멜랑콜리적 자살 성향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이 작품의 배면에 “기조 화성”[49]으로 존재하는 멜랑콜리는 식민지 상황에서 식민지인들이 경험하는 멜랑콜리와 조응하며 이는 액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대의 초극(식민 극복)이라는 “초자아적 요구에 대한 도덕적 마조히즘적 반응”[50]이라고 이해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이효석의 「하얼빈」은 반시대적 성찰이라는 문학적 길항력을 획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북국 3부작에 해당하는 동반작가기 작품에서는 맑시즘에 정향된 작가의 의식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종주국과 그 인민들에 대한 강한 동경의식을 직접적으로 웅변하여 서사적 흠결이 노정되기도 하였다. 이후, 스산한 두만 접경 공간을 배경으로 격변기의 혼란과 불안을 삽화적으로 그려낸 「북국점경」을 지나 「하얼빈」에 이르면 일본의 만주 침략과 2차 세계대전의 대혼란 속에서 상실과 퇴락을 경험하는 이국의 도시를 멜랑콜리의 시선으로 부조함으로써 문학적 내성(內省)을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7) 오형엽,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378면.
48) 위의 책, 378면.
49) 김홍중, 앞의 책, 21면.
50) 구자광, 「‘멜랑콜리’와 탈식민 ‘정치’—W. B. 예이츠의 경우」, 『한국 예이츠 저널』 28, 한국예이츠학회, 2007, 13면.

5. 도시문화의 양가성과 위생강제

이효석 소설의 인물들이 영위하는 도시적 일상성은 주로 도시 산책의 대상으로서의 거리는 물론, 백화점 · 호텔 · 바 · 카페 · 끽차부 · 유곽을 중심으로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 앞서 논의한 「성화」에서 즉흥적으로 결정한 여행을 위하여 다양한 여행 용품들을 구입하는 장면이나 「마음의 의장」에서 도시 산책 후 남자의 기분전환을 위해 백화점에서 유쾌한 빛깔의 넥타이를 골라주는 여성의 모습은 대도시에서 백화점이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닌 일상을 구입하는 공간으로 확실한 문화적 의미를 점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얼빈」의 경우, 호텔은 키타이스카야 거리라는 이국의 거리를 조망하며 도시의 풍물을 관조하는 공간이 되기도 하고, 「성화」에 등장하는 호텔 로비는 탱고 음악에 맞춰 남녀가 춤을 추는 장소로 등장하기도 한다. 따라서 호텔은 단순한 숙박업소 이상의 공간으로 도시 공간에 등장했지만 "호텔의 모더니티와 사치"[51]라는 모순된 지점으로부터 아직 자유롭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었다. 가령, 「성화」의 '유례'가 사상범으로 투옥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그녀에게 호텔이라는 공간은 "당치 않은 것"(2: 459)이다. 그녀는 "로비는 사람을 주럽(피로하여 고단한 증세-原註)만 들게 하고 금빛 벽은 이유 없이 사람을 압박"(2: 459)한다고 말하며 호텔이란 "이 세상에서 갈 마지막 곳"이라 여겨진다.

한편, 바 · 카페 · 끽차부 · 유곽은 이효석의 소설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도시적 공간이다. 이 공간들은 남녀 사이의 유혹이나 성희가 이루어지는 공간이기에 에로티즘과 데카당스가 편만한 장소이다. 또한 '현실도피의 쾌락을 제공하는 동시에 식민자의 모욕과 신체, 감정, 도덕, 문화에 대한 규율이 수행되는 공간'[52]이다. 이효석의 성담론에 등장하는 여성

51) 이미림, 앞의 책, 254면.
52)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156면.

들은 주로 카페 여급, 창녀, 타락한 여성 운동가 들이 중심을 이룬다. 특히 당대의 소위 모던걸이 함의하는 문화적 포즈가 화려함을 자랑했을지라도, 이효석의 소설이 그러하듯 "남성 사회주의자의 담론 속에서" "遊女로서의 모던걸', '성적으로 문란한 불량소녀'로서 낙인"[53]찍힌 채 등장한다. 이 여성들은 겉으로는 성적 욕망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봉건적인 유습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처럼 보인다. 가령, 1930년대 성풍속도를 그린 「성찬聖餐」(『여성』, 1937. 4)에서 바의 여급인 '보배'가 끽차부의 '민자'에게 "아직 깨끗하다는 것이 현대에 있어서는 자랑두 아무것두 아니거든."(1: 47)이라고 말하는 것만 보아도, 성 관념에 대한 전환기적 시대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리버럴한 성적 관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은 내면화된 왜곡된 성의식에 속박되어 있거나 남성에 대한 타자적 위치에 놓인 성적 유희의 대상일 뿐이다.

한편 「장미 병들다」(『삼천리문학』, 1938. 1)는 "진보적 서적을 모조리 읽은"(1: 191) '남죽'이라는 사회주의 여성 운동가의 전락을 모티프로 한 후일담의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당대 남죽이라는 모던걸을 대하는 남성들 사이의 아이러니를 묘파하고 있다. 이로부터 벌어지는 일체의 사건은 그들이 한 때 신봉했던 이념과는 철저하게 반대항에 놓이는 데카당스한 도회의 밤문화에 의존한다. 그들은 밤거리를 헤매다가 조촐한 바에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거리의 부량자(불량자의 뜻으로 보인다-原註)의 권유에 멋지게 춤을 추는 남죽과 이에 대해 질투의 시선을 보이는 현보, 이튿날 강가에서 보트를 빌려 유희하다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지게 되는 해프닝 끝에 그녀와 갖게 되는 잠자리, 남죽에게서 옮아온 성병으로 고생하는 동류항으로서의 현보와 김장로의 아들, 이 모든 사건들은 한 때 그들이 지향했던 이념의 의지가 단지 포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의 반증이자 그것이 썰물처럼 사라진 뒤의 모습을 드러낸 그들의 일상이란 무책임한 소비

53) 유광렬 외, 「모던걸-모던보이-대논평」, 『별건곤』, 개벽사, 1927. 12, 112-113면.

와 방탕에 다름 아님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념의 열정이 사라진 황폐한 정신적 갯벌은 하릴없는 룸펜의 일상으로 허비되거나 철저히 데카당한 자본주의적 위악적 포즈로 채워지며 이는 주로 도회의 바와 끽차부에서 주고받는 남녀 간의 유혹이나 정해진 수순처럼 벌어지는 성적 유희로 나타난다. 이효석 소설에 나타나는 성담론은 당대의 모던걸과 모던보이 들에게서 분방한 즐김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 성을 반영하고, 이때 등장하는 성희는 표면적으로는 리버티의 표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은 미래의 시간으로부터 단절된 전락의 메타포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천사와 산문시」(『사해공론』, 1936. 4)에서 화자가 술집을 전전하다 허둥지둥 걸어간 곳은 '그런 곳'으로 "으슥한 홀을 거쳐 한쪽의 방"(2: 568)을 두고 있는 구조의 공간이다. 마의 소굴이 홀이라면, 매음이 이루어지는 방은 지옥으로 판단한 화자는, 곧 "조출한 한편의 방"이 "하늘에 속하는 것이 아니었을까."(2: 568)라고 자신의 생각을 수정한다. 따라서 방에 등장한 여주인공은 "지옥의 악마가 아니요, 천사"(2: 569)가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화자는 천사와의 성희를 통해 "거리의 천사도 마음의 천사가 될 수 있"(2: 573)다고 말한다. 이렇게 "가혹한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꼴과 처지를 반성하는 것이 아니요, 다시 그의 아름다운 자태에 취하여 그 방의 운명을 한없이 행복하게 여기는"(2: 569) 화자의 태도는 도피나 망각의 포즈로 읽힌다. 도시 체험을 "산문의 경험"에 비유하는 화자는 천사와의 사랑이 즐거운 추억이 되며 그것이 다시 아름다운 노래가 되어 한 편의 산문시로 남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술집 순례 끝에 우연히 들른, 술집과 사창을 겸한 변태적인 공간에서 환락을 경험한 체험담으로서 '천사와 산문시'라는 메타포는 오히려 반어적 의미를 환기한다.

이처럼 이효석은 도시 체험을 산문에 비유하였는데, 「인간산문」(『조광』, 1936. 7)을 보면 초점화자인 '문오'는 "지저분한 거리의 산문"(2: 578)에 대해 강박적으로 혐오하는 신경증자의 모습으로 등장한다. 여기서 산문

의 거리란 사람에 의해서 끊임없이 더럽혀지고 퇴락해가는 “쓰레기통 속 같은 거리”(2: 575)를 가리킨다. 심지어 그 거리의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정한 표준(norm)에서 벗어나는 존재—가령, “얽은 사람, 절름발이, 장님”(2: 577)—는 정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지독한 강박을 나타낸다. 또한 거리의 사람들의 옷을 벗겨보면 “모두 상아같이 하얀 살결을 가지고 있을까”(2: 577) 생각하며, 그 중 한 사람이 불결한 몸을 드러내놓았을 때 그것은 얼마나 환멸의 대상이 될 것인가 상상해 보기까지 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결벽증과 백색 선호 취향은 모두 일종의 ‘위생강제’[54]에서 오는 발현태들이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효석의 소설에 등장하는 산문 혐오적 발언을 근거로 “주어진 현실을 의식적으로 외면하면서” “차츰 산문정신보다는 운문정신에 가까운 서정성과 낭만성을 띤 작품으로 변화”[55]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론에는 해석적 오류가 작동하고 있는 바, 그것은 인물의 처해 있는 상황성과 정신적 강박을 연관시키지 못한 채 이를 작가의 정신세계와 동일시하고 있는 점이다. 먼저 문오는 “어지러운 사랑”(2: 581) 즉, 유부녀인 ‘미례’와의 이른바 불륜의 상황에 놓여 있다. 게다가 피부에 풍진이 돋은 그는 자신의 육체에까지 자학적 환멸을 가지게 된다. 이 모든 그의 병적·악마적 결벽증의 원인은 운명처럼 찾아와 스스로를 괴롭히게 된 어지러운 사랑에 있으며, 그의 산문 혐오는 산란한 불륜의 관계에서 비롯한 알레고리적 성격이 강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학교 연구실을 나와 타지에 있는 회사로 직장을 옮기게 되어 현지에 도착했을 때, “피부는 고패를 넘어 회복기에”(2: 596)에 접어들었으며, 불륜의 상대인 미례가 온다는 말에 그녀를 짐스럽게 여

54) 위생강제는 “청결과 위생에 사로잡힌 오늘날의 사회는 부정성의 모든 형태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게 하며 “위생적인 이성의 조명하에서는 모든 애매성, 모든 비밀이 더러운 것으로 지각”된다고 보았다.(한병철, 이재영 옮김, 『아름다움의 구원』, 문학과지성사, 2016, 21-22면.)

55) 김종건, 앞의 책, 5면.

겼던 그는, 가정을 정리하고 비로소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그녀의 말을 듣게 되자 “혼란과 불안은 구만리의 하늘 밖으로 날아버리고”(2: 600)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거리의 혼란에 대한 강박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효석은 도시의 혼종성을 산문에 비유하여 시처럼 정제되지 않은 다양한 삶의 혼란과 그로 인한 번민을 알레고리화하였는데,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의 산문 혐오는 불륜으로 상징되는 도시적 삶의 “영원한 부정리. 끝없는 카오스.”(2: 580)에 대한 은유적 서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처럼 이효석의 소설은 대도회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백화점과 호텔이라는 공간의 근대의 일상과 사치라는 이중성, 그리고 카페·술집·유곽으로 대표되는 공간에서 나타나는 근대의 데카당스와 그 반대급부로서의 위생 강제라는 정신적 양가성을 포착하고 있다. 이는 그의 소설이 근대 도시문화의 멘탈리티의 표리를 포괄하는 서사적 프리즘을 가지고 있음을 뚜렷하게 증거하는 것이기도 하다.

6. 결론: 이효석 소설의 당대성과 스펙트럼

이효석은 향토적 서정을 추구하며 당대성을 초월한 구경적 이상을 좇은 작가가 아니다. 그는 “1928년 『조선지광』 7월호에 「도시와 유령」을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2: 630)한 이래 1942년 36세의 젊은 나이에 요절하기까지 언제나 당대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하던 작가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의 소설의 권역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에 걸쳐 있고, 그 각각의 좌표(도시)들에서 역사적 근대가 부려놓은 소여(所與)의 지점과 세계의 함수 관계를 성찰하였던 것이다.

먼저 ‘이중도시로서의 식민지 경성’은 주로 동반작가적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내던 시기에 창작된 작품 속에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다. 식민지

경성은 식민지 근대의 진척에 따라 혼종성이 나타난 것을 무시할 수 없지만 지배와 피지배라는 상수가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한 식민지 도시 특유의 불균등 발전에 의한 이중 도시의 특성은 반영될 수밖에 없다.

'전유된 공간으로서의 전원과 관광의 탄생'에서는 식민지 근대의 영향으로 경성과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화와 그에 따른 도회 문화의 확산에 따라 전원과 휴양지와 교외의 관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행해지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근대 도시인의 시각에서 자연이 새롭게 전원의 개념으로 전유됨과 동시에 무목적적·우연적 즐김이라는 오배로서의 근대적 관광의 행위가 1930년대 도시 소설의 내면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하였다.

'동경과 멜랑콜리의 공간으로서의 北國'에서는 해삼위와 하얼빈이라는 북국의 도시를 배경으로 이념적 지향성과 당대의 국제사회적 정체 속에서 시대의 향배를 성찰하고 있다. 동반작가적 경향이 짙은 초기작의 경우는 주로 소비에트 사회라는 사회주의 혁명 종주국과 그 인민들을 향한 동경이 짙게 배어 있고, 「북국점경」, 「하얼빈」의 경우는 일제의 만주 침공과 2차 세계대전으로 상징되는 격동하는 시대상에서 빚어지는 퇴행적 상황성을 짙은 멜랑콜리의 시선 하에서 부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시문화의 양가성과 위생강제'에서는 백화점·호텔·바·카페·끽차부·유곽이라는 도시 문화 공간에서 나타나는 대도회의 일상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여기서 백화점과 호텔이 일상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모더니티와 사치라는 이중적 기표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카페와 술집, 유곽은 이념의 선에서 일탈한 여성의 전락이라는 후일담적 요소와 모던걸과 모던보이로 대표되는 이들의 성희로 구체화된다. 이들에게 성은 자유의 기표이기보다는 건강성이 부재한 사회적 현실과 미래의 시간으로부터 단절된 데카당한 몸부림이며 이러한 도시문화의 퇴폐적 이면과 불륜으로 인한 강박증을 산문 경멸이라는 위생강제로 알레고리화하고 있다.

이처럼 작가 이효석은 자신의 작품 세계 속에서 역사적 근대성에 길항하는 미학적 응전력을 팽팽하게 유지하고 있는 바, 그가 그려낸 식민지 시대의 도시 군상들은 그 시대의 다양한 지향점과 그 상실의 지점을 대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식민지 시대, 서사적 사유의 공간을 경성과 평양을 넘어 두만 접경지역은 물론 하얼빈과 해삼위까지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제시하여 세계사적 층위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시대상을 성찰한 작가라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메밀꽃 필 무렵」에 가려진 이효석의 도시 소설의 층위를 종합적인 논의의 수면 위에 올려놓았다는 점에서 그 학술적 의의에 값한다고 하겠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이효석, 『메밀꽃 필 무렵—이효석 단편전집』 1, 애플북스, 2014.

이효석, 『도시와 유령—이효석 단편전집』 2, 애플북스, 2014.

2. 단행본

김백영, 『지배와 공간—식민지도시 경성과 제국 일본』, 문학과지성사, 2009.

손정목,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1996.

유선영, 『식민지 트라우마』, 푸른역사, 2017.

한용환, 『소설학 사전』, 고려원, 1992.

아즈마 히로키, 안천 옮김, 『철학의 태도—'사상의 패배' 시대에 철학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북노마드, 2020.

————, 안천 옮김, 『관광객의 철학』, 리시올, 2020.

Freud, Sigmund, 윤희기 역, 「애도와 멜랑콜리」, 『프로이트 전집 13-무의식에 대하여』, 열린 책들, 1997.

Han, Byeong-cheol, 이재영 옮김, 『아름다움의 구원』, 문학과지성사, 2016.

Marx, Karl, 최인호 외 옮김,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 선집』 1, 박종철 출판사, 2000.

3. 논문·평론 및 기사

강심호 · 전우형 · 배주영 · 이정엽, 「일제식민지 치하 경성부민의 도시적 감수성 형성 과정 연구—1930년대 한국소설에 나타난 도시적 소비문화의 성립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21,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03, 101-148면.

구자광, 「'멜랑콜리'와 탈식민 '정치'—W. B. 예이츠의 경우」, 『한국 예이츠 저널』 28, 한국예이츠학회, 2007, 5-41면.

김남극, 「하얼빈에서 만난 애수-북만주에서 만난 이효석의 흔적들」, 『작가세계』 19, 작가세계, 2007. 11, 85-105면.

김미란, 「감각의 순례와 중심의 재정위—여행자 이효석과 '국제 도시' 하얼빈의 시공간 재구성」, 상허학보 38집, 상허학회, 2013, 183-220면.

김백영, 「일제하 서울에서의 식민권력의 지배전략과 도시공간의 정치학」, 서울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5.

김성연, 「'꿈의 도시' 경성, 그 이면의 '폐허'—이효석 「도시와 유령」을 시점으로」, 『한

민족문화연구』 제27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227-249면.
김상모, 「도시 공간의 인식을 통한 근대성 탐구—이효석의 「도시와 유령」을 중심으로」, 『어문학』 115, 한국어문학회, 2012. 3, 381-406면.
김종건, 「이효석 소설의 도시공간과 작가의식」, 『통일인문학』 41,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04, 1-27면.
김종근, 「식민도시 경성의 유곽공간 형성과 근대적 관리」, 『문화역사지리』 제23권 제1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11, 115-132면.
김홍중, 「멜랑콜리와 모더니티」, 『한국사회학』 40(3), 한국사회학회, 2006, 1-31면.
박종홍, 「하얼빈 공간의 두 표상—「심문」과 「합이빈」의 대비를 통한」, 『현대소설연구』 62, 한국현대소설학회, 2016, 97-123면.
박준형, 「청일전쟁 이후 일본인의 평양 진출과 평양성 내에서의 '잡거' 문제—일본인 신시가의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비교한국학』 23(3), 국제비교한국학회, 2015, 23-56면.
방민호, 「이효석과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35,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47-69면.
오형엽, 「멜랑콜리의 문학비평적 가능성」, 『비평문학』 38, 한국비평문학회, 2010, 374-401면.
유광렬 외, 「모던걸-모던보이-대논평」, 『별건곤』, 개벽사, 1927. 12.
이경재, 「이효석의 『벽공무한』에 나타난 하얼빈」, 『현대소설연구』 제58권, 현대소설학회, 2015, 331면.
이미림, 「이효석 문학의 커피향기와 카페공간 고찰」, 『현대소설연구』 70, 한국현대소설학회, 2018, 209-240면.
———, 「하얼빈의 산보객 시선과 근대도시 풍경 고찰」, 『우리문학연구』 61, 우리문학회, 2019, 241-266면.
이수형, 「1930년대 모더니즘 문학과 도시의 정신생활」, 『현대소설연구』 제56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4, 409-436면.
전우용, 「종로와 본정—식민도시 경성의 두 얼굴」, 『역사와 현실』 제40권, 한국역사연구회, 2001, 163-193면.
정종현, 「한국 근대소설과 '평양'이라는 로컬리티」, 『사이間SAI』 4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89-123면.
조은주, 「일제말기 만주의 도시 문화 공간과 문학적 표현」, 『한국민족문화』 48, 2013, 99-35면.
진수미, 「모던보이와 암살의 본정과 종로 재현 연구—탈식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7), 한국콘텐츠학회, 2019, 234-245면.

<Abstract>

Urbanity and social historical context in Lee Hyo-seok's novels

Kim, Jeong-nam

The fact that the main exploration space of Lee Hyo-seok's novels is 'city' is a known fact to researchers, but lyrical and romantic rural area is primarily associated with the public. However, Lee Hyo-Seok is an novelist who has broadly shed light on the aspects of urban life under the ideological spectrum of the time.

First of all, the 'Colonial Gyeongseong as a dual City' was concretely shaped space in the work created during the period when it clearly showed the tendency of fellow traveller. Colonial Gyeongseong can not be ignored that hybridity appea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gress of colonial modernity, as long as the constants of dominating and dominated exist fundamentally, mus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even development peculiar to a colonial city as a dual city.

In 'Countryside as an appropriate space and birth of tourism', I analyzed how the concept of countryside, resort area, and suburbs was formed and done according to urbanization centered on large cities such as Gyeongseong and Pyongyang due to the influence of colonial modernity and the spread of urban culture. Through this, it was demonstrated that nature was newly called as a concept of countryside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city dwellers, and that the modern tourism act of purposeless and accidental enjoyment as a misdelivery(誤配)

occurred within the urban novels of the 1930s.

In ‘Northern country as a Space of yearning and Melancholy’, reflecting on the direction of the times i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society as the background of the northern country cities of Vladivostok and Harbin. In the case of early works with a strong tendency of fellow travellers, there is a strong longing for the suscepter of socialist revolution, mainly Soviet society, and its people, and in the case of「Northern country staffage」and「Harbin」, the regressive situation that arises under severe historical circumstances is shaped by the deep melancholy's gaze.

Lastly, in ‘Ambivalence of urban culture and hygiene-forced’, the study focused on quotidienneté of megalopolis, which appears in urban cultural spaces such as department stores, hotels, bars, cafes, tea shops, and red-light district. Here, he pointed out that department stores and hotels have the double signifier of modernity and luxury as they purchase daily life. Cafes, bars, and red-light district are embodied in the reminiscences of women who have deviated from the line of ideology, and the sexual intercourse of those represented by modern girls and modern boys. For them, he pointed out that sex is not a signifier of freedom, but rather a decadent struggle disconnected from the social reality without soundness and future time, such the decadent backside of urban culture and the obsession caused by adultery is allegorized as a narrative of prose contempt.

Lee Hyo-seok is a writer who broadly reflects on the time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rom the level of world history by expanding the spectrum of the colonial period, the space of narrative thought and its amplitude beyond Gyeongseong and Pyongyang, to the Tuman border, as well as Harbin and Vladivostok. Through this he maintains a tight aesthetic response against historical modernity in the world of his works, and the cities of the colonial era he portrayed

represent various oriented point and the points of their loss.

Key words: dual city, countryside, tourism, northern country, melancholy, quotidienneté, hygiene-forced

투 고 일 : 2021년 7월 7일 심 사 일 : 2021년 9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21년 9월 23일